

2010년 가을 · 겨울호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만평주민도서관
- 사)경북이주민센터

053)356-0465
053)356-3494~5
053)356-0463~4
053)356-0468
054)444-8861~2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이사장 김 영 달
(사) 경북이주민센터 이사장



세상사람 누구나 원하는 ‘부자 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아마도 이 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 노릇하기’ 일 것이다.

최진립으로부터 시작해 400년 동안 이어오며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부자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집이다. 이 집안이 유명한 것은 12대에 걸쳐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때문이다.

최부자집은 형산강의 간척 사업으로 토지를 사 모아 부자가 됐다. 그러던 중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커다란 난리를 겪으면서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물질적 부를 소유하는 것 못지않게 나눔과 배움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존경받는 부자’도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90대 고령의 ‘이름 없는 천사’는 추석 때마다 많은 쌀을 기부하는 선행을 8년째 이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박씨 성을 가진 이 노인은 지난 추석 무렵 10kg짜리 쌀 2천 포대(시가 4천 만원 상당)를 싣고 수성구민운동장에 나타나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에게 쌀을 전달해,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전한 뒤 사라졌다고 한다.

가수 김장훈의 선행은 부자에 대한 기준을 달라지게 하고 있다. 정작 자신은 5천 만원짜리 전세에 살지만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연예인 활동을 하며 버는 돈은 몽땅 기부를 하고 있다. 재산이 ‘제로’ 상태이며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서 적자가 날 때도 가끔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부자에 대해 백안시하는 나라도 드물다. 아마도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부자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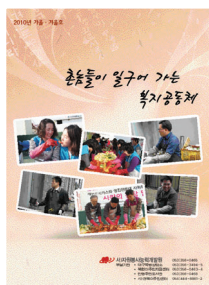
자선 사업가를 뜻하는 ‘레인 메이커(rain maker)’는 우리말로 ‘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뭄으로 땅이 타 들어가 곡식이 시들어 갈 때 단비를 만드는 사람처럼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레인 메이커’가 외국에는 적지 않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좌우명 아래 평생 모은 재산의 90% 이상을 자선 사업에 쓰고 세상을 떠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 자선 재단인 록펠러재단을 만든 존 록펠러,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와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인 홍콩의 리자청 창장그룹 회장, 일본 투명경영의 원조인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회장 등도 동양의 대표적 ‘레인 메이커’로 일컬어진다.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에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민들의 기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더욱 우울하게 한다.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진다.’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경인년 겨울이다.



● 표지이야기 ●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군고구마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평 남짓 방에서 오로지 스스로의 체온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쪽방촌의 춥고 긴 겨울, 나눔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사(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 선

편집인 사(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메일 vongsa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vongsas.org>

2010년 가을 · 겨울호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04



07



13



17



18

02 여는 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 김영달

함께한 나날들

04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6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10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3 사)경북이주민센터의 지난 그림들 | 사)경북이주민센터

14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 대구주거복지센터

16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만평주민도서관

특집 현장 활동 파헤쳐 보기

18 FUN-DAY! 즐거움을 나누는 날! | 김윤정

19 나눔의 한계는 근본적 정책수립으로 가능하다. | 장민철

20 공감창립 | 김창현

22 만평도서관, 아침들의 사랑방이 돼 주시와~요!!! | 조경래

함께해요

23 기관별 12월 일정소개

회원동정 / 직원동정

24 회원소개, 기쁜소식, 입퇴사직원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26 내게 없는 것, 차표 그 이상의 것 | 최희연

27 나눔을 느끼고 | 권애경

살림살이

28 법인 & 만평주민도서관 후원자 및 결산

29 대구쪽방상담소 후원자 및 결산

30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자 및 결산

사랑을 나눠주세요.

31 사랑을 나눠 주세요.

2010 희망캠페인

32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2010년 7월 9일 : 결연사업 평가회

내당역 근처 식당에서 24가족 중 22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2010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무지개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평가간담회'를 가졌다. 저녁식사와 겸해서 진행 된 평가회라 어수선했기도 했지만 1:1 결연가족은 물론 함께 참여한 식구들과 2010년 결연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 귀한시간이었다.



2. 2010년 8월 6일 ~ 7일 : 법인직원 하계연수

'꿈꾸는 자가 주인공이다'라는 주제 아래 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연수를 진행했다. 조직 안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머리열기, 팀 훈련 프로그램과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리하기 위한 비전세우기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첫째 날은 알찬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튿날은 온천, 영화감상 등으로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3. 2010년 9월 17일 : 회원 만남의 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옥상에서 이사, 운영위원, 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다. 이기도 회원님의 자작시 낭송과 황성재 회원님의 기타연주에 맞춘 음악과 함께 초가를 밤의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충분한 날이었다. 특히, 이날은 만평주민 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 된 만큼, 도서관 친구들의 작은 발표회가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밤이었다.



4. 2010년 9월 17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아카데미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님인 유영우 이사님을 모시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 날 강의에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지역단체 실무자, 회원, 쪽방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5. 2010년 10월 16일 : 무지개가족 운동회

2008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결연사업을 통해 인연 맺은 35가족과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제1회 무지개가족과 즐기는 FUN-DAY! 무지개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서구문화체육센터의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운동회에 110여명의 무지개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오랜만에 만나 뛰놀고, 웃고, 즐기는 행복한 날이었다.



6. 2010년 10월 23일 : 직원교육(미디어활용교육)

항중구회원님을 강사로 모시고 미디어활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미디어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서로 공감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알려내기 위한 기초교육이었으며 앞으로 직원개인이 각자가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수정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더 멀리보고 노력하여, 단체를 더 알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결실을 맺길 바란다.



7. 2010년 9월~ : T.F팀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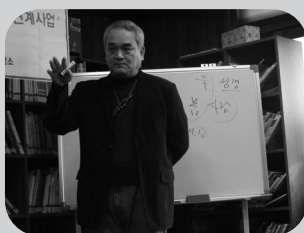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비전작업, 직원복리후생, 조직운영 등 직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활동을 펼치고자 T.F팀 운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유롭게 팀원모집을 진행 중이며 운용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팀 운용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서로의 생각을 풀어내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직이 갖추어야 할 체계를 논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업무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8. 2010년 9월 : 협동조합의 전단계인 수익사업 사과판매
2008년부터 진행 된 친환경 농산물인 안동 길안 사과 판매를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다. 올해는 특히, 쪽방주인과 함께 사과를 따고 포장작업을 진행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다. 지면을 빌어 사과구입으로 사랑을 표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봉사자, 당사자의 활동과 직거래를 통해 좋은 품질의 사과를 싸게 판매하는 만큼 앞으로도 사과판매 수익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상담소와 함께한 나날

1. 7월10일

10일~11일 쪽방하계직원연수를 진행했다. 조직 안에서 내 모습을 알아보는 디스크검사가 진행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반기 쪽방상담소가 나아갈 방향, 사업의 진행경과,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2. 7월 ~11월

대구쪽방상담소 제 9차, 10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고 덕유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특히 1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병덕 운영위원장, 이경희 부운영위원장, 홍창영 총무가 2011년 집행부로 선출되었고 김재진, 권영희회원이 신규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원활한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3. 7월 ~ 11월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쪽방주민 자조모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임광명 목사님을 모시고 인문학 강의로 듣고, 감포로 캠프가서 쪽방 생활의 힘들음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매월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접 만든 반찬을 거동이 불편한 쪽방거주인에게 나누는 활동도 하며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4. 8월 11일

쪽방주민들과 안동시 길안면으로 폭염나들이를 다녀왔다. 백숙도 먹고, 근처 주변 관광지도 구경하고, 시원한 약수물도 마시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한국 부르면서 그간의 스트레스와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8월 19일

대구은행 전락금웅본부봉사단, 사계명1%사랑나누기에서 각 100만원 상당의 선품기를 후원받아 자원봉사자들과 동행하여 쪽방주민들에게 선품기를 전달했다. 지역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선품기 한 대 없이 더위와 싸우던 쪽방주민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6. 8월 28일

쪽방주민들이 모여 "희망회"라는 상호회 모임을 창립했다. 주로 혼자생활하는 쪽방거주인들은 몸이 아플 때, 큰일이 생겼을 때, 생일이 가까워질 때 더 외로운데, 상호회를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쪽방에서 희망을 찾길 바란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7. 9월 20일

명절에 더 외로운 쪽방거주인들과 합동 차례를 올렸다. 고향생각과 부모님생각을 하면서 절도 올리고, 차례를 지낸 후 삼색나물에 비빔밥도 비벼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며 추석



분위기를 냈다. 또 다른 가족을 만들며 살아가는 쪽방에서의 삶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8. 9월 23일

지하 작업장에서 버프를 포장하고, 지우개 깎을 접으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작업장 식구들과 함께 포항 칠포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바다낚시도 하고, 맛있는 회도 먹고, 단풍놀이도 하고,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9. 10월 ~ 11월

쪽방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쪽방무료진료소는 서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쪽방거주민 40여명 정도 독감예방접종을 하였고, 결핵검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또, 2010년 하반기부터 대구의료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과 암 검진 및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쪽방주민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의료연계망이 확보되길 바란다.

10. 11월 17일

2010년 희망캠페인 첫 행사로 도시가스과 영진전문대사회봉사단이 김장600포기를 담고, 쪽방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도 하였다. 쪽방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기업체들이 희망캠페인에 참여하길 바란다.

11. 12월 2일

SK에너지 대구물류센터 달구벌천사단에서 연탄 5,000장을 쪽방거주민에게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위원을 주셔서 감사하며, 꾸준한 관심을 기대한다.

12. 7월 28일

대구시 폭염관련 대책회의의 결과,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쪽방거주민들에게 선풍기 200대가 전달되었다. 일회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13. 9월 13일

13일~17일까지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상품권이 쪽방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지만,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14. 9월 25일 ~ 11월 5일

3주에 걸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대구 전 지역의 쪽방을 다니며 쪽방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문을 하면서 생활의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지역별 변화와 생활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1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워크숍



▲'삼성-공동모금회' 지원사업간담회



2 ▲여름 반빈곤현장 활동



▲ '기초생활수급 10년을 말한다.' 세미나



▲ '홀리스현황과 교회활동을 모색하는 Homeless 간담회



▲ 국민권익위원회&전국쪽방상담소 실무자간담회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함께한 나날

1.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활동

쪽방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무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활동을 격월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 회의와 연대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7월 29일 ~ 31일에는 "Homeless적 관점에서 바라본 쪽방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아래 회장, 사무처장의 소속단체인 대구쪽방상담소 주최로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에서 하계워크숍을 진행했다. 10월 6일에는 매년 동절기에 진행되는 '삼성-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함께 참여했으며 전국의 쪽방주민 5,800여명에게 40,000원 상당의 물품과 지역별로 12,000원 상당의 별도 물품이 지원 될 예정이다.

또 물품지원이라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으로 발의 준비 중인 '홀리스지원법' 법안에 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되짚어 보고 준비 중인 전국쪽방실태조사와 전국세미나를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 반빈곤네트워크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는 대구지역단체들이 모여 반빈곤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을 매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빈곤을 사회적인 문제로 함께 고민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최저생계비 계층의 한계와 비현실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대학생 반빈곤현장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2월에도 겨울 반빈곤 현장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6일에는

대구 MBC 7층 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 1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윤승걸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서 쪽방주민 실태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에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반빈곤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빈곤 없는 세상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3. 대구서구지역복지협의체

대구서구지역복지협의체는 11월 13일 '2010 날외 복지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서구지역의 복지관련 실무자, 봉사자, 후원자 등 300여명의 복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통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지역복지단체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 행사 전, 개회식 때 진행된, 서구지역 복지유공자 표창에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구지역복지협의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복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4 전국홀리스연대

대구쪽방상담소는 전국의 홀리스 기관들이 모여 작년 12월 15일 출범한 전국홀리스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일 홀리스교류회'가 열렸으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홀리스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홀리스복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8월 31일 전국홀리스연대와 NOCK 선교훈련원이 공동으로 Homeless 간담회를 개최하여 홀리스현황과 지원 활동에 있어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홀리스법제정, 홀리스기관 실무자교육,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홀리스 참정권'을 목표로 활동을 구상중이다.

5.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지난 8월 12일, 전국의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던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전국쪽방상담소 실무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쪽방재생, 의료지원체계, 매입임대주택입주지원 제도 등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향후 조사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6. 2010년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지난 10월, 대구시는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각 구청 및 노숙인 관련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대책에 의하면,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강화, 의료, 응급 잠자리 서비스 강화, 거리노숙인 보호 및 상담반 편성 운영, 쪽방도우미 운영 등을 시에서 운영계획이다. 계획한 대책들이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의 생계와 주거안정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2. 8월17일 장민철 국장 인터뷰

평화뉴스에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의 설명으로 현재 대구지역 쪽방의 현황과 실태 등이 보도 되었다. 언론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구지역의 쪽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쪽방의 후원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11월 11일 대구 MBC 라디오 인터뷰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에 최은경 간사, 전인규 간사, 박남건 간사, 박OO 아저씨가 동절기 쪽방거주인의 대책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무료진료소의 소개와 최근사례를 소개하고, 쪽방 매입임대에 대한 설명, 자활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쪽방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이기에 청취자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갔으리라 생각된다.

언론과 함께한 나날

1. 7월14일 윤승걸 소장 인터뷰

대구 mbc 뉴스데스크에 대구쪽방상담소 윤승걸 소장이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평가와 대안마련' 이란 주제로 현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신문보도자료 현황>

- 매일신문 8월 6일
: 폭염이 더 힘든 사람들, 쪽방촌 주민
- 대구일보 8월 8일
: 폭염 속 발로 뛰는 '현장행정' 눈길
- 대구일보 8월 12일
: 대구 구구청, 취약계층 폭염대책 마련
- 매일신문 8월 17일
: 8월 들어 폭염으로 5명 사망
- 한겨레신문 8월 23일
: '폭염짬통' 쪽방촌, 사선에 선 독거노인
- 매일신문 9월 4일
: 대구시,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내년 3월까지
- 매일신문 9월 28일
: 제 발로 유치장 찾는 노숙인들 숨은 사연은...
- 뉴시스 9월 29일
: 반빈곤네트워크,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민원신청(쪽방상담소 연대단체)
- 뉴시스 11월 3일
: 대구시,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마련

- 경북일보 11월 4일
: '노숙인 · 쪽방 생활자 겨울나기 돕자'
- 평화뉴스 11월 11일
: 쪽방의 한파...낮은 전기장판과 두 장의 이불(쪽방상담소 쪽방 현장동행)
- 천지일보 11월 14일
: "쌀보다 즉석 음식, 연탄보다 난방비 지원해 주세요" (쪽방상담소 쪽방 현장동행)
- 대구일보 11월 17일
: 쪽방촌 긴 겨울을 녹이는 사랑의 김치(쪽방상담소 2010희망캠페인 활동)
- 대구일보 11월 23일
: 한겨울에 나누는 연탄 한 장의 온기

「언론보도를 위한 대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위한 나눔 활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위한 쪽방촌 취재가 아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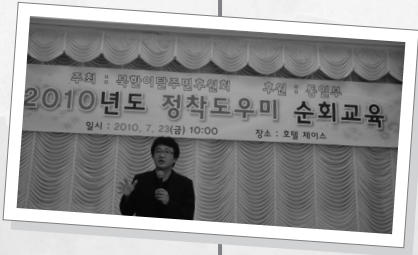
언론보도가, 개인의 방탕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경쟁사회 속에서 배제된 쪽방촌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앞장서길 바랍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지난 그림들



1. 신나는 캠퍼스!! 당당한 사회인!! 하계캠프

북한이주민 예비대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9일 ~ 10일 1박 2일간 동해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확 트인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단합하는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정착도우미 순회교육 참가

7월 23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착도우미 순회교육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친구이자 이웃인 정착도우미들이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화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새터민 배움터 모금활동 시작

새터민 배움터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합니다. 새터민 배움터는 검정고시반(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과 대학생 공부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구좌.



4. 영남권 하나센터 권역회의

8월 5일에 영남권 하나센터 권역별 회의가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권역별 회의는 영남권 하나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경숙 교수님(대전을지대 정신과)과 전진용 선생님(하나원 정신과 공중보건)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 실무자들의 PTSD 대상자 대처방안,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련 실태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열강해주신 최경숙 교수님, 전진용 선생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김연희 교수님(대구대 사회복지학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5.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여름캠프

8월 20일 ~ 21일 1박 2일 동안 발개돌이 방과 후 공부방 여름캠프 다녀왔습니다. 경산 편편비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경주국립박물관, 안압지, 천마총 등 경주의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우리의 옛 문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캠프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숙식하며 자립심과 우정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6. 전국하나센터 워크숍

8월 23일 ~ 24일 양일간 전국 하나센터 워크숍이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 이번 워크숍은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특색을 가진 각 지역 하나센터간의 정보교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할 수 있었고,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의 이해(김천식 통일정책실장), 하나센터 발전방안(대구대 김연희 교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현황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지원(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현황과 방향(서정배 정착지원과장)등의 강의로 담당직원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 샘 게러비츠 호주 대사님 센터 방문

샘 게러비츠 호주대사와 아멜리아 애플턴 2등 서기관이 8월 26일 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사업현황에 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대학진학 상황 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현하셨으며, 이후 2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대사님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중국어로도 대화를 나누시며 이들이 경험한 힘들었던 사건과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깊이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한 대화에서는 호주의 다문화 정책, 최근 한국계 호주인들이 2명이나 호주정부의 외국대사로 임명된 이야기 등을 통해 이주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사님을 위한 브리핑에 수고해주신 대구대 김연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대구에 올때 마다 언제든지 센터에 들르고 싶다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주신 샘 게러비츠 호주대사님과 아멜리아 애플턴 이등 서기관님께 감사드립니다.





8. 한가위 행사

9월 13일 저녁 7시에 אליאנג스에서 한가위 행사(주최: 대구광역시, 주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 협의회)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반가워하며 서로 안부도 묻고 식사도 하며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가위이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다문화시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확대시키고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배움터에서 강자가 열렸으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무자,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7주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새터민 배움터 중국어반 개설

새터민배움터는 대학진학 반, 검정고시 반 및 보충학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점 중 하나가 중국어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점을 발전시키고 더욱 전문적인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얼마 전 중국어 반을 개설했습니다. 중국어 반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서 8시까지 대구하나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11. 북한이주민과 함께 떠나는 가을추억여행

결실의 계절 가을에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바다가 넘실거리는 거제로 가을추억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견학, 공룡박물관, 마을 담장에 이쁜 벽화들이 가득한 동피랑 마을 견학 을 하면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북이주민센터의 지난 그림들

1. 경북서북부하나센터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6기 2010년 7월05일 ~ 7월16일
3명 수료 (안동)



7기 2010년 8월02일 ~ 8월 13일
3명 수료 (구미)



8기 2010년 8월30일 ~ 9월10일
4명 수료 (구미,안동)



9기 2010년 10월04일 ~ 10월15일
4명 수료 (구미)

경북서북부 권역(구미,김천,문경,상주,안동,영주,칠곡)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이 구미와 안동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비누만들기,네일아트 체험, 쿼트체험 등 많은 체험학습과 문경새재,안동하회마을,의성제오리의공룡발자국화석, 구미금오산, 김천 직지사 등 지역문화 관광체험 으로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즐겁고 기억에 썩썩 남을 지역적응 교육을 준비 하겠습니다.

2. 더도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경북서북부권역에 추석명절 행사가 9월 12일(안동,영주) 18일(문경,상주)19일(구미,김천,칠곡) 각 지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지역관계자분들이 참석한 추석명절행사에 함께 모여 고향이야기도 나누고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동 추석행사 사진



문경, 상주 사진



구미 사진

3. 안동지역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활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조직화 사업이 안동에서 지역자조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주민 간 교류를 통하여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모임이 미숙하나 한회, 한회 모임을 가지면서 안동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저희 기관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1.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운영위원회

전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11개 기관이 모여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현황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각 센터의 소장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발전을 위해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2. 주거복지이동상담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7월 21일 성서와룡공원, 10월 10일 남구주거복지박람회, 10월 30일 동구 율하공원 일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상담소는 지역의 소외된 분들에게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취약계층의 주거관련권리 상담, 주거관련 긴급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지원 및 상담 등 주거취약세대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3. 2010 주거복지 및 연계자원 설명회

7월 28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론의 장 마련과 미흡한 주거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모색 그리고 공공·민간/민간·민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행복주거복지센터와 집·희망 주거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실시되었으며 지역의 복지관, 주거관련단체,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주거 빈곤 당사자등이 함께하여 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설명회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4. 특수주거취약계층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

9월 2일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11월 12일 달구벌자립생활센터에서 주거복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거복지 설명회는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거상담과 각종 주거복지정보를 알려드리는 자리이며 그중 몇몇 분은 쪽방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되어 현재 입주 예정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특수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이분들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전국주거복지협의회 활동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에서 전국의 주거복지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워크숍은 9월 9일 ~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구를 비롯해 전국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들 및 주거복지관련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전국주거복지센터는 전국의 주거복지관련 기관, 단체, 연구자그룹 등을 총 망라하는 협의체인 '전국주거복지협의회' 발족을 앞두고 있으며 준비위 2차 간담회가 10월 6일 대전쪽방상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책활동, 제도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국주거복지협의회는 2010년 12월 '총회 준비 워크숍'을 진행 후, 2011년 초에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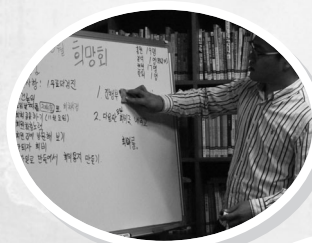
6. 주거복지센터 선정위원회 및 주거권 네트워크

주거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대구쪽방상담소,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의 각 소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7. 쪽방매입임대 입주(예정)자 자조모임 및 정착교육

쪽방매입임대 입주(예정)자 자조모임 및 정착교육이 9월, 10월에 있었습니다.

9월 모임은 자조모임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합동 차례상 올리기가 진행되었고, 10월 모임은 자조모임과 입주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자조모임은 입주자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조언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조모임이 건강하게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만평주민도서관 문화강좌 안내〉

독서논술교실 : 매주 월요일 4시~5시 / 저학년, 고학년

리폼교실 :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 12시 30분 / 지역주민 누구나

만들기교실 : 매주 월요일 5시~6시, 목요일 5시~6시 / 유치부, 저학년, 고학년

1. 2010년 7월 26일 ~ 8월 18일 : 씨앗학교

여름방학기간동안 씨앗학교 '꿈꾸는 도서관, 신나는 방학놀이터'를 열어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보냈다. 씨앗학교는 재미있게 공부하고 신나게 노는 독서논술교실, 민요교실, 역사교실, 미술교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씨앗학교 친구들, 어른들의 무한한 사랑과 인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예쁜 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2. 2010년 8월 19일 : 눈으로 배우는 현장배움터

씨앗학교 마무리 배움터로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공장, 고래박물관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이 날은 지역의 공부방 친구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으며 자동차, 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보고 설명 듣는 값진 경험이었다. 더불어 고래박물관에서 고래의 종류, 역사를 공부하고 먹이 주는 모습관람, 고래탁본 쓰기 등 눈으로 직접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대자동차공장의 점심, 기념품 제공으로 더욱 풍성한 현장배움터로 마무리 되었다.



3. 2010년 9월 6일 : 독서논술교실 개강

도서관 개관과 함께 시작한 독서논술교실 문화강좌가 2010년 가을학기에도 어김없이 개강해서 진행 중이다. 독서논술교실은 오랫동안 진행해 온 만큼, 사계절출판사, 국립중앙도서관 후원으로 진행 된 YES24 어린이독후감대회에서 입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서논술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재미있는 수업으로 책을 접하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큰 꿈을 키우며 자라고 있다.



4. 2010년 9월 17일 : 1주년 기념행사

2009년 8월 18일 개관한 만평주민도서관 첫 돌을 맞아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오전에는 김여옥 강사님의 지도아래 지역주민들과 함께 1주년기념 하우스파티에 참석할 주민과 회원들을 위해 천연비누 만들기를, 오후에는 윤태규 상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 공부,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부모공개강좌를, 저녁에는 옥상에서 운동민의 끈짜를 위하여 노래, 편경택의 시낭송, 최재동의 독후감상문 발표 등 작은 발표회를 가졌다.

만평주민도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친구들과 해서 더 의미 있었던 날이었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소통공간으로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음을 느낀 값진 날이었다.



5. 2010년 10월 5일 : 리폼교실 개강

김대기 선생님의 자원활동으로 진행되는 지역주민대상 문화강좌인 '리폼교실'을 개강했다. 오래된 액자를 클레이를 이용해서 멋지게 리폼하기도 하고, 버려지는 상자를 예쁘게 꾸며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접기로 각 휴지 케이스를 만드는 등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멋지게 만드는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리폼교실 문화강좌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소통공간이 되고 있다. 참여주민들이 만들어갈 도서관의 더 멋진 내일을 기대한다.



6. 2010년 10월 7일 : 만들기교실 개강

종이접기, 클레이아트 만들기 수업을 개강했다. 아이들에게 손으로 하는 놀이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창의력 향상과 두뇌개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개강 2주 만에 정원 10명이 넘어 일주일에 1회 수업을 2회 수업으로 늘려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해주신 김대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2010년 11월 12일 ~ 13일 : 가족캠프

검봉산자연휴양림의 후원으로 '툰틀이들, 산속에서 내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이 날 캠프는 11명의 가족이 함께했으며 서로의 다름과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툰틀거리기에 바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더 신나고 재미있는 내일을 그리는 캠프로 진행되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가족캠프라서 의미 있었다.



8. 2010년 11월 11일 : E.M강의

김남숙 사서선생님의 강의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M(유효 미생물균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사용해야하는 필요성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접하고 E.M세제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E.M은 버려지는 싼뜨물과 E.M원액, 당밀을 섞어서 만든 뒤 설거지, 빨래, 냄새제거 등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 지역주민들이 E.M사용을 생활화하여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길 바란다.



9. YES24 단체상 수상

국립중앙도서관 후원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YES24 어린이 독후감 상문대회에서 만평주민도서관 독서논술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단체상을 수상했다. 단체상 부상으로 어린이도서 30권을 받았으며 아이들은 함께 이루어낸 성취감에 모두들 기뻐했다. 앞으로 더 재미있게 수업하고 자라나서 내년에는 개인상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만평주민도서관 카페에 놀러오세요

다음카페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을 검색하세요.

<http://cafe.daum.net/manpyunglib>

법인

FUN-DAY! 즐거움을 나누는 날!



지난 10월 16일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을 보낸 터라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이 성큼 다가와 푸른 가을하늘을 자랑하던 날, '무지개가족과 함께 즐기는 FUN-DAY!' 라는 주제 아래 제1회 무지개가족 운동회가 열렸다.

무지개가족 운동회는 2008년부터 '내-외국인가족 자내결연사업' 을 통해 인연 맺은 식구들과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회원들이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웃음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날도 기획되었다. 책정된 사업비 없이 진행된 행사라 걱정도 많았지만 대구은행, 서대구농협주부대학총동창회, 큐브티, 미삽의 후원으로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었다.

운동회 준비팀은 오전 10시부터 운동회 장소인 서구문화체육센터에 모여 풍선아치를 만들고 만국기를 걸고 단체티셔츠를 정리하는 등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길들이 바빴다. 오후 1시가 넘어서서 무지개가족들이 속속 도착 하고 하하팀과 호호팀의 티셔츠를 나누고 한바탕 신나게 웃고 즐기고 뛰어다닐 준비를 다 갖춘 뒤 간단히 몸을 풀고 두 팀의 응원전을 시작으로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진행아래 힘을 모아 풍선기둥 만들기, 큰 공굴리기 릴레이, 하나 둘 하나 둘 발맞추어 2인 3각 경기, 뒤집고 또 집고 색판뒤집기, 단체 줄다리기 등 막상막하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즐겼다. 마지막은 다함께 원을 그리고 꼬리 물기를 하며 손을 흔들며 체육관을 도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웃으며 보냈어요." 운동회가 끝난 뒤 참여한 가족의 말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웃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재미있게 뛰놀고 땀 흘리며 함께 어울리면서 즐길 때 웃는 큰 웃음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터이다. 더불어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 웃음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때 나는 웃음이고 즐거움이다. 따라서 즐거움도 나눠야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무지개가족 운동회는 결연사업에 참여한 가족이 준비위원으로 구성되어 추진하여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앞으로 더 큰 웃음을 서로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날로 지속되길 바란다.



김윤정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간사



나눔의 한계는 근본적 정책 수립으로 가능하다.

전국의 쪽방주민 규모는 5,700여명(2009년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으로 노숙인의 수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응급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전국에 있는 10개의 쪽방상담소도 1999년에 '대통령령'으로 긴급하게 설치되어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열악하고 불안정하게 운영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쪽방상담소 실무자들은 쪽방주민들이 거리 생활로 전락하지 않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2월, 날씨가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전국의 쪽방상담소들은 여전히 그 어느 해 겨울보다도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동절기 대책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쌀, 라면 등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나눔 활동, 연탄, 전기장판, 동내의 등 동절기 난방을 위한 물품지원 등 5,700여 전국의 쪽방거주인들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여유롭게 날 수 있도록 각종 자원들을 개발하여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돌아해보면, 쪽방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장에서 서비스 중심적으로만 활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실천과 정책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면, 우리는 후자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다고 자평해 본다. 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전국쪽방 실태조사'를 위해 쪽방지역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가)홈리스지원법' 제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알려내고 법에 근거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면을 통해, 실태조사와 나눔 활동을 위해 추위에 입김을 뿜어내며 밤마다 좁은 골목골목의 쪽방에 살아가는 쪽방거주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은 없으신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열심히 뛰어나며 활동하는 전국 쪽방상담소 실무자들과 거리를 누비는 노숙인 단체 실무자들의 열정에 동료로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 더불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나눔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서 홈리스 정책이 노숙인 중심이 아닌 노숙위기에 처한 계층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근본적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사무국장

북한
이주민
지원
센터

김창현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2003년 6월 24일 개소 이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경을 넘은 북녘 동포들이 중국과 제3국을 거쳐서 남한 사회로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이주는 급격하고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을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가진 지역적인 한계, 조직적인 한계, 내용적인 고민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어려움 또한 절실히 느낍니다.

이에 지난 8년 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분단의 시간이 만들어 낸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사단법인 공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1. 북한이주민의 측면

- 북한이주민의 기초생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북한이주민의 생활상담·권리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주체적 자기 생활설계
- 북한이주민의 생활복지 조직화 활동을 통한 연대감 형성과 네트워크 형성 강화
- 북한이주민의 취업연계 활동과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참여와 가계 소득 증대
- 북한이주민의 진로상담과 학습지원을 통한 자기성장의 기반조성과 사회참여의 기회 확충
- 북한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향후 통일시대의 역할 재고



김창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팀장

2. 시민의 측면

- 일반 시민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불신 해소
- 지역 내 민관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의 지지기반 확대에 대한 관심과 참여 촉진



- 시민 북한이주민 상호간의 문화, 경제적 격차 완화와 지속적 · 균형적 상생관계 촉진
-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 확대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확대 및 생산
- 민간 주도의 대북지원 참여기회 확대와 기반 강화

3. 사업 육성 측면

- 북한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 지속적 일자리 창출
- 경험적 · 전문적 진로지도와 학습지원을 통한 북한이주민의 자기실현 기반 확충
- 다양한 대북지원의 인프라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확대 강화
- 북한이주민 · 난민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 북한이주민의 특성과 역량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실행



■ 사업목표(목적사업)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	대구하나센터 운영, 조기지역적응교육, 정책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새터민배움터	»	진학지도 및 상담, 대학진학 학습지원, 아동 방과 후 공부방, 검정고시 지원
대북지원사업	»	대북지원(쌀, 연탄, 생필품, 의약품 등), 지역기업체 개성공단 진출 지원
정책연구소	»	새터민, 난민, 이주민 정책연구 & 정책제안
공정여행	»	사회적 기업, 북한이주민 가이드(중국어)채용 등 고용확대 & 안정화

- 1) 북한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종합적 정착지원사업
- 2) 북한이주민과 유관 기관 및 단체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 3) 북한이주민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배움터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
- 4) 지역중심의 대북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네트워크 강화사업
- 5) 북한이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6)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만평
주민
도서관

만평도서관, 아침들의 사랑방이 돼 주시와~요!!!



조경래
만평주민도서관 회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북부도서관.

그래서 아이들이 세 살, 다섯 살이 되던 무렵부터 나들이 삼아 자주 가곤 했다. (사실은 자주 가고 싶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데 어떤 날들이 장소보다 자주 가야할 곳이란 머릿속 생각과는 달리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왕 부담감.

그 이유는 바로 “절대 정숙!”, “음식물 반입금지!”, “개인공부 금지!”

나도 이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상식녀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절대 정숙’이라니 그것도 어린이 열람실에서.... ‘음식물 반입금지’는 이해하겠는데 공부까지 금지? (공부만 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왜? 난 상식녀니까!) 하지만 난 좀 더 자유로운 도서관을 원한다.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요즘 나에겐 북부도서관보다 더 가까운 도서관이 생겼다. 바로 만평주민도서관!!

조금은 낡고 어둡지만 도서관의 문을 열면 도서관 자원봉사 선생님이 인사로 나를 반기시며 차 한잔을 먼저 내미신다. 도서관에선 ‘음식물 반입금지’에 위배되는 거 아냐? (심지어는 아이들과 간식도 만들어 먹는다.) 내가 들고 간 노트북을 연결해 글을 쓰고 공부를 해도 도와줄 것이 없느냐, 어둡지 않냐고 방에 불까지 켜주신다. ‘개인공부 금지’에 위배된다. 하지 말란 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아는 네 살 막둥이가 장난감 쏟고 아무 책이나 마구 빼들고 와서 뒹굴어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 도서관, 아이들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절대 정숙’이 없는 도서관.

재래시장이 인접해있고 고소득층 보다는 서민들이 많은 이 동네의 특성은 맛벌이가 많고 그나마 집에 있는 엄마들도 너무들 부지런해서 이런저런 부업을 하느라 시간이 잘 안 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아이들과 엄마들에게는 문화적 소외가 심하다. 더구나 돈을 들여가며 뭔가 배우겠다는 생각은 과한 욕심쯤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나 역시 그런 문화적 갈증을 고민하던 차에 도서관에서 마련한 문화강좌 리폼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득 없는 수다만 떨다마는 티타임에서 벗어나보고자 아침들끼리 열심히 참여중이다.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다.

아줌마인 내가 만평도서관을 다니면서 갖게 되는 바램이라면 도서관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요즘처럼 가을 단풍이 절정인 때엔 작은 가방에 커피 보온병을 넣고 이웃 엄마들과 함께 앞산으로 가을 단풍 밟으러도 가보고, 몸도 맘도 오그라드는 추운 겨울날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메달렸을 영혼을 따듯이 적서줄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함께 볼 수 있고, 남편들이 절대로 데려다 주지 않는 팔공산 드라이브 길 어딘가에 있다는 백년찻집에서 함께 찻잔을 나누어 보기도하고, 대치동 엄마들만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말씀 주실 수 있는 강의도 들어 볼 수 있고, 내 심정을 담은 구구절절한 소설 한 편 혹은 시 한 편을 소개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랑방 역할을 만평주민도서관이 해주면 좋겠다.

또 다른 바램이라면 날씬 각선미와는 찝끔 거리가 있는 엄마들 다섯만 모여도 딱 차는 도서관 거실, 건물 밖에서 봐서는 절대 도서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눈여겨 찾지 않으면 잘 못찾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 간판이라도 큼직하니 붙였으면 한다는 거, 거기다가 욕심을 더 부려보자면 늘여가는 책을 꽂기도 어렵게 좁아져가는 공간을 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제 1년차 주민도서관이니 내 욕심이 과한 것은 알지만 이런 희망을 품다보면 오래지 않아 그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기/관/별/ 12/월/ 일/정/소/개

자원봉사능력개발원&만평주민도서관 일정

- ▷ 12월 28일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송년의 밤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뷔페홀
시간 : 저녁 7시
- ▷ 12월 : 만평주민도서관 문화강좌
내용 : 독서논술교실, 리폼교실, 만들기교실
- ▷ 12월 : 만평주민도서관 여름방학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제 목 : 씨앗학교 '꿈꾸는 도서관, 신나는 방학놀이터!'
- 모집기간 : 2010년 12월 1일 ~ 31일
-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수업일시 : 2010년 1월 3일 ~ 1월 28일
AM10:30 ~ 11:20
- 참 가 비 : 전 강의 3만원, 1회 강의 1만원
- 문의전화 : 053-356-0468

대구쪽방상담소 일정

- ▷ 12월 2일 :
SK대구물류센터 연탄나눔행사(5,000장)
- ▷ 12월 7일 :
청와대 사회통합수석과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 ▷ 12월 9일 ~ 10일 :
주거복지협의회 워크숍
- ▷ 12월 15일 :
삼성지원 동절기 물품지원 행사(구미삼성전자)

- ▷ 12월 21일 :
KT&G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라면, 연탄 지원: 일천만원)
- ▷ 12월 21일 :
쪽방주민 송년의 밤 및 운영위원회 송년회
- ▷ 12월 21일~12월22일 : 겨울 반빈곤활동
- ▷ 12월 24일 : 희망회 정기모임
- ▷ 12월 28일경 :
홈리스입법공청회
(주최:민주노동당 박정숙의원실 장소:국회)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일정

- ▷ 12월 13일 :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장소 : 노보텔
- ▷ 12월 18일 :
새터민과 함께하는 경주 나들이
- ▷ 12월 23일 :
북한이주민 취업관련 토론회(국회)
- ▷ 12월 30일 : 후원주점
장소 : 계명대학교 돌계단 옆 하마호프

경북이주민센터 일정

- ▷ 12월 18일 :
새터민과 함께하는 부산해운대 나들이
- ▷ 12월 22일 :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장소 : 호텔 금오산 그랜드홀
시간 : 저녁 7시~9시

새롭게 손잡은 회원을 소개합니다.

권민수 권민재 권영희 권지수 김경미 김봉수 김성아 김재진 김춘현 문현준 박남건 박수진 성기순 유영희 유택규
이건엽 이경란 이주연 장희철 최은성



신입회원 권영희

저는 한국알파시스템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권영희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대구쪽방상담소는 또 다른 경험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기에 망설임 없이 후원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아직 부족한 저에게 쪽방상담소 운영위원이라는 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미약하지만 한쪽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힘을 보태려 합니다.



신입회원 김춘현

SK텔레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춘현입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큰 뜻과 사업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사업들이 더욱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활동회원 최순자

저는 대한생명에서 우수인증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흔네살 최순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인연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목도리가 되고 장갑이 되어 외로운 마음과 시린손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 누군가 기댈 수 있게 내 어깨를 내어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그것이 나눔이고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주 함께하지 못해 늘 아쉽고 죄송하고 내년에는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자 노력할게요. 후원자님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직원 기쁜소식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김창현 팀장, 경북이주민센터 김영진 간사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결실 맺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은 함께 즐기고,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예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작년 10월 결혼한 대구 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이 올 7월에 첫 딸 예랑이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예랑이가 마음 따뜻한 아이로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입회사 직원

경북이주민센터 김동국 소장,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신미경 심리상담사, 천영익 팀장, 김제인 국제인턴, 전종민 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는 법!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안성문 인턴, 대구쪽방상담소 김경민 공익근무요원을 새 식구로 맞았습니다. 함께 활동하게 된 식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걸어 갈 길이 행복으로 가득차길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자원봉사능력개발원&만평주민도서관

사업진행 자원활동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무지개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무지개가족 운동회', '회원만남의 날', '아카데미' '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 등 여러 사업과 행사에 학교 공부와 바쁜 중에도 전보경, 강이슬, 권수현학생과 박소정, 박미란 선생님이 틈틈이 오셔서 행사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문화강좌 강사

도서관개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독서논술교실'을 맡아 재미있는 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현정선생님, 지난 10월부터 만평기교실, 리폼교실을 맡아 문화강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김대기선생님, 방학프로그램 씨앗학교에서 장구가락에 맞춰 우리민요를 배우는 민요교실을 담당해주신 전성희 선생님 덕분에 만평주민도서관은, 책과 사람과 문화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서가정리 자원활동가

김민수, 박해동, 신용현, 변재성, 강민정, 이용훈, 박소희, 최지은, 최미리, 강지원, 김주희, 이예슬, 장민정, 황재영, 황재민, 이우현, 여덕원 학생이 만평주민도서관 서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서가정리활동



동대구역 무료급식활동

▶ 대구쪽방상담소

무료급식 자원활동

마음의 등불, 청하이 무상사, 영진전문대학 사회봉사단, 한국전력대구사업본부 봉사단, 별을가꾸는사람들 등 여러 단체에서 매주 금요일 동대구역에서 있는 무료급식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의 식사가 유일한 식사이기도 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웃음까지 전하는 봉사단이 되길 바랍니다.

실태조사&재가방문 자원활동

계명대학교 김무근, 권애정, 노주은, 박창근, 대구대학교 한상우학생과 직장인 이청권, 이병술, 오세흠, 김민진, 전상우선생님이 높은 건물을 틈에 숨어 있는 쪽방지역을 다니며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재가방문 자원활동가 쪽방거주인의 현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재가방문활동

2010 희망캠페인 자원활동

대구도시가스 봉사단, 영진전문대학 사회봉사단, 한순남, 이정숙, 정군자, 김효진, 박미란, 하미정, 이병노, 김옥자, 전보경, 이주형 선생님이 추운날씨에 600포기 감장담그기 활동을, SK에너지 대구물류센터 천사봉사단이 쪽방지역에 연탄 나눔 자원활동을 함께했습니다.



감장나눔활동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새터민 배움터 강사

국어, 국사, 수학, 사회, 영어, 중국어수업의 학습지원 강사로 김현숙, 이종혁, 배준영, 이남경, 이진희, 문소영, 남명화, 강지윤, 박향숙, 방순희, JJ Yang선생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발개돌이 공부방

새터민 이동들의 방과후 공부방은 국어, 수학, 로봇 만들기 교실의 자원활동가 조현정, 송해림, 김아린 선생님과 공부방 자원활동가 이상재 선생님의 활동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정착도우미

인터넷 봉사활동 단체 "소금회", "별을 가꾸는 사람들"은 대구로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주민들의 주택 청소와 정착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배움터



꾸준히, 묵묵히, 항상 웃는 얼굴로 함께해주시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희연

쪽방무료진료소 봉사자 치과의사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내게 없는 것 차표 그 이상의 것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대학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리 행사가 있으니 참석을 바란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후배에게는 별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지금 대구에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울까지 다녀오려면 차비만 따져도 얼마인가 당시에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되도록 서울에 가는 일을 자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 차비가 어디선가 갑자기 생긴다면 과연 내가 행사에 참석할까?'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나는 그 돈을 또 다른 나의 용처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차비가 아니었습니다. 동아리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관계를 지속하며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쪽방무료 진료소를 방문하게 된지 6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터라 저는 아직도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치아관리를 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되어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치과는 치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미리 가면 갈수록 치료비용이 적게 들고 간단한 치료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들이 스케일링을 받고 치아관리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저씨들은 지금 아프지도 않은 치아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행사에 갈 수 없다고 답한 이유는 차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석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쪽방 진료소에서 무료 스케일링이라는 '차표'를 아저씨들에게 드리고 참석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표 그 이상의 것'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아저씨들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을 느끼고



권애경

대구쪽방상담소 봉사자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대개 봉사활동이라 하면 어려움 느낌이 드는 나였다. 특히나 '봉사활동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다 접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에 하게 되었던 쪽방상담소 봉사활동은 처음 해 본 봉사활동이지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하시고 정말 좋으신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밝은 환경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 하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쪽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도움을 나누어 드릴 수 있구나' 를 느끼며 이런 게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들과 함께 쪽방 사람들을 방문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분들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느끼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많은 것을 나눠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여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우리 복지 환경에 속상하기도 했다.

방문활동이 끝나고 동절기를 맞아 쪽방 사람들에게 김치를 담궈 나눠주기 위해 배추도 뽑고, 그 배추를 자르고 절이는 일을 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예스럽지 않은 솜씨로 척척 일을 하시는 다른 봉사자 분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 또한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도우고, 나중에 김치가 되어 쪽방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생각하면 위안이 되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봉사자 분들도 생각했던 것 일수도 있겠지만 내가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이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나눔이었다. 작지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나눠 드리고, 아직까진 많이 나누어 드리진 못했지만 정도 나눠드리고, 마음도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선생님들, 쪽방 사람들에게 배워가는 것을 알았다.

봉사활동을 다르게 말한다면 나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눔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보람을 주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주위에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이라는 것들이 아닐까.

아직까지 주위에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도 많다. 하지만 자신의 나눔 능력도 모르고, 이러한 나눔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도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만평주민도서관
(2010.7.1~2010.11.30)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자〉

강동일 강용기 강정우 곽다은 곽종문 구본민 구소라 김건한 김경녀 김광미 김규진
김규학 김명신 김미숙 김민철 김병덕 김봉수 김성일 김수정 김승기 김신지 김애화
김영은 김영진 김윤정 김은경 김재진 김정아 김정호 김종태 김진국 김찬구 김철원
김춘현 김현정 김현지 김형섭 김형조 김혜민 노교현 노진영 류창호 박상우 박애선
박일숙 박정규 배지영 배해정 백우열 서상인 서상화 서희용 성기순 성동건 손영자
송광웅 송지영 양 경 양선현 여상희 오메삭 원영숙 원종구 유영희 유정무 유태영
윤대기 윤 영 윤종곤 윤한웅 은현숙 이경란 이광진 이권성 이권우 이대명 이동인
이동훈 이미경 이상미 이상윤 이세아 이수연 이승우 이정배 이정화 이진경 이진우
이찬상 이현정 장대환 장민철 장희영 전미경 전정옥 정미영 정수영 정연미 정용태
정은찬 정정원 정현오 정효미 조경락 조경래 조상호 조은정 조준우 조현숙 조현정
주성민 지숙희 채병준 최경화 최기훈 최명순 최순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지 추연재
태진철 편남희 하민희 함석호 허영길 현대숙 홍예옥 홍은숙 홍창영 홍혜옥 황경진
황선연 김영숙A 김영숙B 박수진A 박수진B (주)혜성광학 665-6688대리운전
대구도시가스 대구은행본점 미래산업개발 서대구농협주부동창회 세하포토 영진전문대학교

〈이사회비〉

김 선 김영달 김영대 노경숙 신경목 윤승걸 이경재 이상동 조갑식

〈물품후원〉

〈만평주민도서관〉

김상훈 김원형 김현익 박애선 서인찬 신경목 윤영희 이창현 전정옥 조경래 홍창영
책&물품 후원 : 김남숙 김대기 김춘현 문헌준 박소정 변자영 변재성 안수연 안현옥
양 경 윤동민 윤광목 하미정 황성재 대한생명 성서지점장 김창순
미샵대표 이영미 큐브티대표 이상철

이 외 대리운전 이용과 수익사업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 입			지 출		
합 계		38,083,255	합 계		38,083,255
회비 수입	일반회비	667,000	사무비	인건비	8,259,270
	cms회비	9,185,000		운영비	6,033,388
	특별회비	16,300,432		업무추진비	2,250,500
	소계	26,152,432		소계	16,543,158
사업비	수익사업수입	6,050,000	사업비	후원홍보 사업	1,416,270
	만평주민도서관	3,127,900		조직연대 사업	268,513
	소계	9,177,900		교육훈련 사업	1,637,090
전입금	다른 회계 전입금	1,390,000		프로그램수행	4,311,190
	소계	1,390,000		자원봉사 사업	97,000
이월금	2010년 6월 이월금	1,362,923		만평주민도서관	3,220,500
	소계	1,362,923		결연사업	418,000
잡수입	예금이자	-		수익사업-사과판매	1,156,780
	기타 잡수익	-		소계	12,525,343
	소계	-	전출금	북한이주민지원센터	6,683,650
				대구쪽방상담소	500,000
				만평주민도서관	200,000
			잡지출	소계	7,383,650
				잡지출	-
			잔액		1,631,104

* 고맙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

(2010.7.1~2010.11.30)

<든든한 후원자>

구봉주	구선화	권우현	권충근	김경미	김기환	김동현	김미정	김봉환	김상금	김상현	김성호	김수경
김시환	김영자	김영희	김유성	김윤정	김임수	김일회	김삼숙	김정현	김종훈	김지연	김진국	김천호
김학수	김현숙	김현준	김희준	나석준	나정호	남길식	남홍진	류현지	박귀자	박명숙	박미숙	박민경
박선배	박소연	박소현	박연경	박홍배	박희웅	변영호	서재희	송영규	송정옥	신상욱	신은정	양정희
오매식	오진미	우승봉	원동건	유상희	윤지례	이건엽	이경미	이관태	이국로	이동욱	이마트	이명숙
이병술	이상록	이 수	이수남	이승미	이승민	이시온	이신영	이애자	이은경	이은애	이임희	이재심
이종돈	이주화	이준호	이지현	이창현	이태수	임경범	임동훈	임해진	전미경	전인규	정광옥	정대식
정명숙	정석찬	정재훈	정희영	조선국	진호림	천병우	천윤중	최규영	최병우	최윤중	한경희	현무용
황진니	이경희(A)	이경희(B)	이주연(A)	이주연(B)	광만복	지재단	해피빈					

<물품후원>

- 평화홀딩스(무료급식용 쌀) 백미 20kg 51포
- 급성사(무료급식 부식) 백설기 28박스
- 대봉교회(반찬) 김치 80세트, 라면 40박스
- 칼라푸드(영어반찬)
- 서구청(라이온스클럽) 백미 10kg 5포
- 서구청 재해구호물품 10박스
- 지순옥 구제리류 90점, 포도
- 한순남 떡 2박스
- 동서제약웰빙사업부 홍삼진액 120박스
- 미륵불사 백미 17kg, 김장용 젓갈 1박스
- 박애선 반찬 40세트, 추석명절제기세트
- 마음의 등불 마1박스
- 서구종합복지관 김장 150포기
- 마음의 등불, 청하이 무상사, 한국전력대구사업본부 동대구무료급식후원
- 조현정 사과
- 추석명절 공동모금회 상품권
- 최광호 김장물품지원(무우)
- 도시가스 김장 400포기
- 영진전문대학 사회봉사단 김장 200포기
- 동구자원봉사센터 김장 180포기
- 서구제일종합복지관 김장 300포기
- YMCA 김장 200포기
- 동구청 희망배추 200포기
- 김시승 배추 30포기
- 동구자원봉사센터 춘추 잠바 50벌
- 산격종합복지관 김장 150포기
- 대봉교회 김장 120포기

<쪽방에 도움주시는 약국>

경명약국 경북약국 경성약국 광산약국 광장약국 극동약국 대보약국 대일약국 대지약국 동아약국
 동재약국 문화약국 바른약국 백상약국 보건약국 보림약국 보성약국 수정약국 신성약국 안일약국
 영남약국 우성약국 유명약국 유창약국 유한약국 이화약국 장수약국 제일약국 젼마약국 조인약국
 천일약국 청신약국 추계약국 김스약국 평리약국 하림약국 한독약국 해인약국 건강당약국
 굿모닝약국 뉴서대구역약국 메디팜서진약국 북비산약국새달성약국 새세명약국 새솔밭약국 새현대약국
 서약국 신약국 신평리약국 온누리미소약국장춘당약국 청암당약국 최약국한사랑약국

<쪽방진료소와 협력하는 병원>

M병원 김효정치과 약손약국 영남이비인후과 한영안과 한건호비뇨기과 대구의료원 누가항문외과

수 입		
합 계		203,576,871
사업 수입	명절특식사업	740,000
	기획사업	1,000,000
	공동부업사업	2,701,921
	프로그램신청사업	5,922,000
	경과적일자리창출	4,860,480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1,400,000
	대구주거복지센터	52,143,180
	소 계	68,767,581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0
	후원금수입	14,853,925
이월금	소 계	14,853,925
	전월이월금	116,927,057
	예금이자수익	628
잡수입	기타 잡수익	2,527,680
	소 계	2,528,308
전입금	법인전입금	500,000
	소 계	500,000

지 출		
합 계		203,576,871
사무비	인건비	59,683,510
	운영비	14,581,150
	업무추진비	2,693,800
	소 계	76,958,460
	직업재활사업	2,721,921
사업비	생계지원사업	24,970,000
	기타사업	2,537,350
	프로그램신청사업	6,880,350
	폭염대책지원사업	5,000,000
	화랑자활사업	2,191,900
	공중보건의 활동비	4,200,000
	경과적일자리창출	4,860,480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946,470
	대구주거복지센터	33,575,270
	집지출	500,000
	소 계	88,383,741
	잔 액	38,234,670

* 고맙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10.7.1~2010.11.30)

〈든든한 후원자〉

강경점 강명숙 강상호 강정우 강지윤 강현숙 고경빈 구봉주 권현익 권오현
 김경림 김경민 김경호 김목유 김민경 김병준 김석동 김성아 김성훈 김성희
 김순득 김순복 김연희 김영문 김영진 김원태 김은희 김종식 김종훈 김진국
 김진석 김창현 김학수 김현미 김현애 박대근 박성일 박수선 박연경 박영아
 박영란 박종무 박주이 박지은 박찬중 박현정 서재희 신경목 신미경 심성지
 여은상 오메삭 유영학 유재영 유택규 윤명식 윤승걸 이강혁 이경미 이경연
 이경희 이광운 이광호 이기도 이동원 이명환 이미영 이상록 이상윤 이선미
 이은정 이은희 이준호 이진희 이창현 이태준 이필순 이혁수 이혁주 이현중
 이화정 임정숙 임호산 장미정 장민철 장연상 장진영 전종민 정미정 정상걸
 정지균 조대성 조은주 조재희 조현정 주은경 채민수 채영주 천영익 최경호
 최경숙 최규영 최선미 최세호 최은경 최인식 최진웅 최태성 최해수 최효정
 표현경 하춘수 한승엽 허지향 허진욱 현대숙 홍창영 황성은 황종구 허영철
 K선배회 이마트영수증 후원 제일교회10여전도회 영남대IVF 탐피부비뇨기과
 미래산업개발

수 입		
합 계		276,271,894
보조금	정착도우미	32,067,17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2,000,000
	노동부민간협력	20,600,000
	지역적응교육센터	67,400,000
	인권단체협력사업	2,858,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교육	6,983,272
	연대사업	90,00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협력사업	6,000,000
	공동모금회사업	10,000,000
	소계	147,998,442
후원금 수입	지정/행사후원	100,000
	일반후원금	27,499,301
	CMS	7,215,000
	소계	158,098,442
전입금/접수입	법인전입금	6,683,650
	예금이자	11,737
	기타접수입	168,000
	소계	6,863,387
전월 이월금		86,595,764

지 출		
합 계		276,271,894
사무비	인건비	8,869,298
	운영비	4,741,250
	업무추진비	10,002,500
	소계	23,613,048
사업비	정착도우미	23,148,550
	공동모금회제안기획	13,030,000
	대구시민간경상보조금	2,000,000
	노동부민간협력	19,724,816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교육	6,904,500
	산은사랑나눔	16,282,990
	지역적응교육센터	81,134,61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협력사업	10,972,650
	인권단체협력사업	8,829,000
	연대사업	90,000
	조직화사업	1,355,840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	3,500,000
후원금	소계	186,972,956
	지정후원금	80,000
	소계	80,000
잡지출	잡지출	0
	소계	0
잔 액		65,605,890

사랑을 나누주세요

처음의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당연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할 날을 꿈꾸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 하나 '친.친.더.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함께 먹고 싶고, 기쁨은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듯이,

나보다 너를, 너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일도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 정기 후원자가 되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8-05-002942-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5)나 인터넷(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 이마트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칠성점 : 2번	만촌점 : 164번	시지점 : 80번	성서점 : 135번
반야월점 : 92번	비산점 : 42번	달서점 : 71번	경산점 : 51번

■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쪽방주민과 북한이주민에게 쌀, 동내의, 전기장판, 연탄, 이불 등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만평주민도서관 책장을 꽉찰 채울 '책'과 만들기교실에 사용할 문구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

2010 희망캠페인

‘쪽방촌의 긴 겨울, 나눔에서 답을 얻다!’

사랑의 연탄나눔행사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방에 있어도 몸이 떨리고, 말을 할 때 마다 입김이 나오는 이불을 얼굴까지 덮지 않으면 코가 시린, 혼자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곳이 쪽방입니다.

몸이 추운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마음까지 추워지면 더 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참여단체가 많이 부족하여 쪽방촌의 겨울나기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월동준비를 하기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땀감을 마련하고, 창문 틈의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막음을 하듯 쪽방에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물품이 필요합니다.

월동준비를 하기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땀감을 마련하고, 창문 틈의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막음을 하듯 쪽방에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물품이 필요합니다.

희망캠페인 지원 물품



라면
(18,000원 / 1박스)



동내의
(15,000원 / 1벌)



전기장판
(30,000원 / 1개)



난방유
(20,000원 / 1말)



연탄
(50,000원 / 100장)



이불
(25,000원 / 1채)



쌀
(20,000원 / 10kg)



김장
(100,000원 / 10포기)

작은 희망이 모여면 쪽방거주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바랍니다.

● 대구지역 쪽방거주인 850세대

후원문의 : T. 053-356-3494 / F.053-356-3496

후원계좌 :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